

# 퍼펙트 論述

언어에 대한 고찰

# 언어는 단순 표현매체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 1. 말과 정신의 문제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을 표현한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해 주는 도구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 즉 표기 수단이 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시대 우리의 선조는 지금의 우리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 표기는 한자였다. 중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모두 자국의 언어 습관대로 생각했을 것이지만 공식적인 표기는 라틴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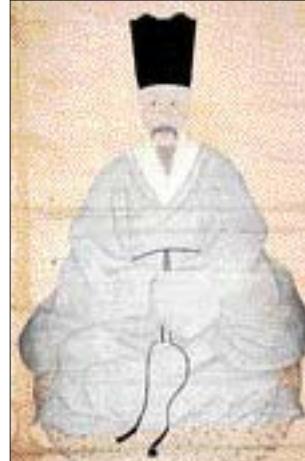
그러나 생각과 표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우세해지는 오늘날의 언론일치의 언어 생활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그 정신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한글학자였던 허웅 선생은 말의 정신은 곧 그 민족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허웅 선생은 서포 김만중과 실례질의 사례를 통해 말과 정신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말과 정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예나 지금의 언어학자나 철학자들 가운데도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17세기 우리 나라의 정치가이며 소설가인 서포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은 허웅 선생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며 말이 되고, 말에 가락이 붙으면 노래와 서문(詩文)과 부(賦)가 된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 않으나, 진실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각각 그 말에 따라서 가락을 붙이면 곧 죽히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에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중국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온 말에 가락을 붙이면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에도 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지극하면 하늘에도 통할 수 있듯이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타난 말도 역시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말글인 한글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김만중의 인식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에게서 맡은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말과 정신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서양의 언어학자나 철학자 가운데서도 많은 동조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실험들은 ‘언어는 인간 정신을 그대로’



서포 김만중의 영정.

로 본 때 넣은 것”이라 하였고, 라이프니찌는 ‘언어는 반간 정신의 가장 좋은 반영’이라 했다. 헤르더도 ‘우리들은 이제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헤르더의 사상을 이어 받았다고 생각되는 훌볼트는 ‘언어의 다른 이름은 민족의 독립된 언어를 가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언어와 민족의 관계가 일대일로 대응하여 밀착된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언어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민족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언어가 그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데 구심점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언어와 민족의 관계는 과연 위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확대되어 해석된 것인가? 언어와 민족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그 의미를 따져 보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같은 경험을 한 우리에게도 낯선 일이 아니다. 언어가 어느 민족의 동질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자산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동질적인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민족의 독립된 언어를 가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언어와 민족의 관계가 일대일로 대응하여 밀착된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언어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 3. 국어 순화의 문제

국어의 순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밀바탕에는 말의 순화를 통해 생활양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말은 단순한 표현의 수단일 뿐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기능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생각의 표현이 말이고, 생각의 변화는 말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 좋아한다는 말을 반복한 상대에게 진정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 가끔 개인적인 경험이나 글을 통해 알려지곤 한다. 말이란 참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힘을 가진 존재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국어 순화의 주장은 한 가지 선명한 명분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사회적 소산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언어는 언어 대중의 자연스러운 언어 생활 이외의 방법으로 순화시킬 수 없으며 함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된다. 맡은 그 자체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며 사용되지 않는 맡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언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을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 순화론자들은 왜 언어를 굳이 ‘순화’라는 수식어를 동원하여 언어의 사용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은 “말이란 단순히 사회적 반영으로 발생한 것, 곧 ‘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말이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곧 무엇을 이루어 내려는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맡은 이루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곧 언어는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 형성이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사람, 한 사회의 비속한 말은 그 사람, 그 사회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점잖고 아름다운 말은, 대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안정된 질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